



날으는 홍범도장군

제19호
2018. 12. 3
겨울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신교동) 발행인: 우원식 편집인: 홍성덕
TEL: 02)734-8851 ~ 2 FAX: 02)722-0251 <http://cafe.daum.net/hongbumdo>



홍범도장군 탄생150주년 기념식,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사)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우원식)에서는 10월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홍범도 장군 탄생 1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바킷 듀센바예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이종찬 국립 대한민국의사기념관건립위원회 위원장, 나중화 광복회 부회장과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이종걸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사업회와 남양홍씨남양군과대중중회(회장 홍성종)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재향군인회 등 임원, 그리고 해군 홍범도함 승조원들과 관련단체 임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강훈식 국회의원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우원식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하여 “홍범도 장군은 무장독립투쟁의 최고 영웅으로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역사적 평가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수천, 수만의 독립투사들의 위대한 역사가 후손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피우진 보훈처장과 바킷 듀센바예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그리고 박유철 광복회장의 축사와 조환래 홍범도함장의 편지가 대독되었다. 이동순 영남대학교 명예교수의 축시낭독이 있었고,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연구에 공로가 많은 이동순 교수, 김유진 전 국회의원, 장세운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원, 반병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임인택 상생방송 피디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서 역사어린이 합창단과 노원 구립여성합창단이 압록강 행진곡과 독립군가,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고, 홍성종 회장의 만세삼창으로 추모식을 마무리했다.

홍범도장군 75주기 추모식, 카자흐스탄에서 개최

기념사업회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순국75주기 추모일을 맞아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에서 방문임원 20명과 주 카자흐스탄 김대식 대사, 전승민 알마티 총영사와 고려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을 개최했다.

우원식 이사장은 국정감사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홍성덕 부이사장이 기념사를 대독하고, 신경혜 이사장 부인이 인사말씀을 했다. 이어서 김대식 대사와 전승민 총영사, 오가이 세르게이 고려인협회 회장과 안 스타니 슬라브 독립유공자 후손회장이 추모사를 했다. 한편 이동순 영남대학교 명예교수의 추모시 낭독으로 장내가 숙연했고, 강 게오르기 고려문화 부회장의 홍범도 장군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제2부에는 고려극장 배우들이 연극 “의병들”을 재연했다.

흥범도 장군 탄생150주년 기념 이사장 기념사

흥범도 장군의 혁신과 배려정신은 지금의 시대정신과 맞닿아 해방이후 이념적 덧칠로 수 많은 업적을 인정받지 못해



우 원 식
(기념사업회 이사장)

올해는 흥범도 장군 탄생 1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탄생 15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에 이사장을 새롭게 맡게 돼서 더 없이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조국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흥범도 장군의 빛나는 업적을 하나라도 더 찾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주신 이종찬 명예이사장님과 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범도 장군은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독립군에게 첫 승리를 가져다 준 봉오동 전투는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지형에 매복했다가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그야말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흥범도 장군의 뛰어난 전술운용 역량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품이 소박하고 명예를 탐하지 않고, 휘하의 부대원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화합하는 공동체를 강조하신 분입니다.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는 항상 몸을 낮추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많은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100여 년 전 흥범도 장군이 보여준 혁신과 배려의 정신은 지금의 시대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의 낡고 잘못된 구습과 비리를 떨쳐버리고 정의와 새로운 가치를 위하여 과감히 도전하고 혁신했던 장군의 위업을 계승하여,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타인을 배려하고 포용하면서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흥범도 장군은 독립군으로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지속적인 투쟁을 벌였던 우리 민족의 영웅이었지만, 한국 독립운동사에서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소련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이역만리 타국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것도 모자라, 해방이후 이념적 덧칠로 인해 청산리대첩, 봉오동전투 등 수많은 업적을 세우고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광복 70년을 훌쩍 넘긴 지금도 흥범도 장군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유해가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역만리

에서 쓸쓸히 잠들어 있는 현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수천, 수만의 독립투사들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한독립운동사의 실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현대사에 기록되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의 위대했던 삶을 기리는 일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우리 후손들의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사는 흘러가는 과거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립운동사는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최대의 교훈이며 자랑입니다. 독립운동사는 현재 우리의 삶이며, 그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위대한 독립운동정신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 천만 국민들이 높이 들었던 촛불로 계승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 정부 출범이후 독립운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국군에서는 국군의 역사를 해방이후 군사영어학교와 조선경비대에서 출범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 일제 항쟁기의 의병투쟁과 독립군, 광복군의 독립전쟁을 국군의 뿌리로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선열들이 자주독립의 역사를 새롭게 쓰셨듯이, 우리 후손들도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누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흥범도 장군의 탄생 150주년을 맞아,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기념사업회로서, 또한 후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을 결의합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민족과 나라 앞에 닥친 어려움과 위기에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홍범도 장군 탄생 150주년 기념식 기념사

피우진 처장, “장군의 리더십과 독립운동 정신 계승 계기가 되기를”

홍범도 장군 탄생150주년 기념식에서 피우진 보훈처장은 치사를 통하여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기개를 만천하에 떨쳤다”고 강조하고, 장군의 리더십과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이종찬 명예이사장은 “2005년 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13년 동안 그분의 발자취를 더듬어 오는 동안 홍범도라는 위인을 배우고 흠모하게 되었다”고 회고하고, 애국적 역량이 있는 우원식 의원에게 인계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박유철 광복회장은 홍범도 장군이 함경도 일대에서 의병투쟁을 벌일 때 붙였던 “날으는 홍범도 장군”을 소개하면서 “독립에 기대를 거는 민초들의 여망을 읽을 수 있다”고 축하했다.

한편 바킷 듀센바예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는 “카자흐스탄에는 ‘홍범도 거리’가 있고, 장군의 묘역이 있고, 고려극장이 있어 장군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다”고 말하고, 양국 간 문화교류에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준식 관장과 이종걸 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기념식 국민의례〉



〈이사장 등 기념사업회 임원들〉



〈역사어린이 합창단〉



〈노원 구립여성합창단〉

신규 이사로 한동건 사장 선임, 정수영 간사 임명

기념사업회에서는 10월 국회의원회관 737호 우원식 이사장실에서 이사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이사로 한동건 사장을 선출하고, 정수영 비서를 간사로 임명했다.

한동건 이사는 (주)태백자원개발의 대표이사로 을지대학교 해외사업단장을 역임했다. 정수영 간사는 이사장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범도 장군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과 카자흐스탄 추모행사 및 고려극장 연극팀 초청문제를 협의했다. 추모행사에는 임원 20명이 참석하기로 하고 크즐오르다 묘지 참배를 위하여 5박6일 일정으로 결정했다.

홍범도장군 탄생150주년 기념우표 발행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장군의 탄생일을 맞아 10월 12일자로 “홍범도장군 탄생150주년 기념우표” 72만매를 발행하였다. 기념우표는 만국우편기구에 가입한 200개 국에 배포되며 전국 우체국에서 발매하고 있다.



홍범도장군 순국75주기 추모행사,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에서 거행 고려인협회, 독립유공자후손회와 공동 주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는 장군의 순국75주기를 맞아 카자흐스탄에서 추모식을 거행하게 위하여 10월 22일 홍성덕 부이사장을 비롯한 20명이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10월 24일 크즐오르다에서 묘지 참배 행사를 마치고 그날 저녁 알마티에 도착했다.

추모식은 25일 오후 2시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에서 거행하고, 이어서 홍범도 장군의 의병활동을 소재로 한 연극 “날으는 홍범도 장군”을 관람했다.

추모식은 박재옥 자문위원과 김 조야 고려극장 배우의 공동 사회로 우리말과 러시아어로 진행되었다. 우리 기념사업회와 고려인 단체의 공동주최 행사이기 때문에 국민 의례도 양국 국기에 대한 경례와 양국 국가를 제창하고, 홍범도 장군에 대한 묵념으로 진행되었다. 홍범도 장군의 연혁은 이 올레그 고려극장 감독이 보고했다.

우원식 이사장은 홍성덕 부이사장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우리 선열들이 자주독립의 역사를 새롭게 쓰셨듯이, 우리 후손들도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누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자”고 추모하고, 신경혜 이사장 부인이 “이사장님이 국회일정 때문에 못 오셨지만 연해주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 김환 선생의 후예이므로 고려인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깊다”는 인사를 했다. 이어서 김대식 카자흐스탄 대사는 “홍범도 장군의 조국에 대한 기여와 위상은 천산의 준봉처럼 높으나, 이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예우는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스텝강의 바람처럼 허허하기만 하다”고 회상하고, 장군의 고훈을 조국으로 모시도록 뜻을 모으기를 기대한다고 추모하였다.

전승민 총영사는 “장군께서는 크즐오르다 고려극장에서 수위로 일하면서 독립군 지도자로서 위엄을 잃지 않고

고려인 동포들과 대화와 정을 나누며 말년을 지냈다”고 말하고 장군은 독립운동사에서 특별한 위상을 가진 전설적인 영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오가이 세르게이 고려인협회 회장은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위대한 교훈은 미래의 차세대에게 애국주의와 대담성, 강철 같은 의지, 그리고 자국 국민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추모하였다.

안 스타니슬라브 독립유공자후손회 회장은 “고려인 동포들은 홍범도 장군의 민족 영웅으로서 가치를 차용한 사람”이라 말하고 가치의 보존은 고려인 자신에게 있다면서 장군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추모사가 끝난 후 이동순 영남대 명예교수의 추모시 “아, 홍범도 장군”의 낭독이 있었다.

이 시는 러시아 시인 라르샤 한국러시아학교 교장이 번역하여 사회를 맡은 김 조야 배우가 낭독했는데, 참석한 고려인 동포들은 물론 현지인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인

“여보게들 / 내 조국 땅에서 오셨다는 귀한 님들 /
얼른 이리 오게 와서 손이라도 한 번 잡아보세 /
그리고 고향 소식 들려주게”

는 방문 임원들의 가슴에 메아리로 남았다.

이어서 고려문화중심 강 게오르기 박사의 추모 강연과 고려극장 중창단의 추모가가 있었고, 이어서 참석자 전원이 순서에 따라 헌화하고 추모식을 마쳤다.

추모식이 끝난 후에는 연극 “날으는 홍범도 장군”을 관람하였다. 이 연극은 태장춘 원작으로 1942년에 초연했던 작품을 76년 만에 기념사업회 후원으로 재연한 것이다.



...홍범도장군 75주기 추모식 이모 저모...



〈고려극장 정문 앞에서〉



〈방문단 임원 일행을 맞이하는 류보비 극장장〉



〈사회를 맡은 박재욱 위원과 김조야 배우〉



〈홍성덕 부이사장과 신경혜 여사 인사말씀〉



〈고려극장 중창단의 아리랑과 선구자 중창〉



〈방문 임원단과 연극 출연진〉

홍범도 장군 순국75주기 크즐오르다 묘지 참배 고려인 동포들과 공동으로 개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장군께서 안장되어 있는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로 크즐오르다에 정착하여 1943년 순국하셔서 여기 중앙공동묘지에 모셔져 있다.

기념사업회 추모방문단 일행은 10월 23일 크즐오르다 공항에 도착하여, 고려문화협회 김 엘레나 회장의 영접을 받고 고려인 동포 대표들을 초청하여 만찬을 베풀고 장군의 추모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다음날, 24일에는 장군의 묘지가 있는 중앙공원묘지에서 고려인대표, 한글을 배우는 카자흐스탄 청소년들과 함께 묘지를 참배했다. 추모 방문단 일행은 장군의 흉상 앞에 헌화하고, “홍범도 장군 탄생150주년 기념우표”와 이동순 영남대 명예교수의 저서 “서사시 홍범도”, 홍성덕 부이사장 수필집 “네 손자의 나무”를 봉정하였다.

장군께서 서거하신 1943년 10월 25일은 독·소 전쟁 중이라 거주지 근처에 임시로 묘지를 조성했다가, 제2차 대전 종료 후 중앙공원묘지로 이장하였고, 크즐오르다 주정부에서 장군 거주지 주변 도로를 “홍범도 거리”로 명명했다. 1951년 10월 8주기를 맞아 레닌기치 신문과 고려인 유지들이 “홍범도장군 분묘 수리위원회”를 조직하여 반신 조

각상과 철장 및 철로 된 비를 세웠다.

1981년 레닌기치 부주필 김국천 선생이 발기하여 이듬해 4월 묘지를 넓히고, 조경을 새롭게 하여 현재의 묘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96년 우리 정부와 기업의 성금으로 장군의 흉상 주변에 3개의 기념비를 건립하는 등 묘지를 단장했다.

참배행사가 끝난 후 “홍범도 거리”와 계봉우 선생 거주지, 현재 문화공연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려극장 옛터를 답사하고, 크즐오르다 고려인협회 김 엘레나 회장이 초청한 오찬에 참석하였다.

홍범도 거리는 장군께서 동지들과 왕래했던 곳이고, 고려극장은 말년에 수위라는 직책으로 근무했던 곳이다. 당시 태장춘 극장장이 수위로 모신 것은 연세가 70세가 넘는 은퇴자이지만 연금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의 급여를 드릴 구실로 삼고,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왕래하는 극장에서 함께 대화하고 소일하시라는 배려였다고 한다.

홍범도 장군은 고려극장에서 일생일대의 중요한 작업을 했다. 태장춘 극장장의 요청에 따라 “홍범도 일지”를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홍범도 연극이 만들어 졌으며, 레닌기치에 연재된 역사소설 홍범도의 기본 자료가 되었다.



〈홍 부이사장과 김경호 이사, 신경혜 여사, 김엘레나 회장〉



〈홍범도 장군 참배 후 방문단 기념 촬영〉



〈방문 임원단 계봉우 선생 묘지 참배〉



〈홍범도 거리 입구 건물벽 표지판〉

크즐오르다 주정부, 홍범도 장군 탄생150주년 기념행사 지원 컨퍼런스와 고려인협회 공연 행사 성황리에 개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의 방문 임원단 일행은 10월 24일 오후 3시 크즐오르다 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홍범도 장군 탄생150주년 기념행사장에 도착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방문단 일행이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단지 묘지참배 이후 컨퍼런스(발표 회의)와 공연이 있으니, 기념사업회에서 연사 두 분이 기념사업회의 활동과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각각 10분 동안 강연을 준비하라는 연락이 왔을 뿐이었다. 또 통역이 필요하니 발표 원고를 보내라고 했다.

행사장인 문화회관은 소수민족의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1층이 400석, 2층이 100석이 되는 대형 공연장이었다. 공연장의 정면 벽에는 홍범도 장군의 대형 초상과 함께 “홍범도 장군 탄생 150주년, 한국의 영웅”이라는 걸개그림이 붙어 있었다.

방문단 일행은 1층 VIP석으로 안내되었다. 관람석에는 고려인 동포들은 물론 현지 청소년들이 자리를 메웠다.

제1부 컨퍼런스 행사는 크즐오르다 주의회(의장은 주지사가 겸임) 투레쇼바 라일라 비서실장이 주관했다. 연사로는 기념사업회 홍성덕 부이사장과 황원섭 이사, 그리고 크즐오르다주 고려인사회연합 김유리 회장, 크즐오르다 국립대 카자흐스탄민족의회 강좌장 아이트잔 오라스

바꼬브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홍 부이사장은 2005년 기념사업회 창립 이후의 추모사업과 연구활동에 대하여 발표했다. 황원섭 이사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주제로 장군은 의병투쟁에서 독립군으로 발전시켜 독립전쟁을 주도한 항일무장투쟁의 전설적인 영웅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어 통역은 김경호 이사가 담당했다. 현지 발표자들은 1937년 강제이주와 정착과정, 홍범도 일지의 내용과 저술과정, 그리고 장군 서거이후의 추모사업에 대하여 발표했다.

2부 행사는 공연으로 크즐오르다 소수민족연합에서 준비한 공연을 했다. 공연에 앞서 홍범도 장군의 무장투쟁을 형상화한 영상을 공연했다. 홍범도 장군의 의병과 일본군과의 전투 장면을 재연하고, 일본군을 섬멸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했다.

영상 공연이 끝나고는 김 엘레나 고려문화협회 회장이 지휘하는 부채춤 등 민속무용과 민요, 그리고 크즐오르다 청소년들이 역동적으로 케이팝을 열창하여 400여 명의 참석자로부터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 임원은 “크즐오르다 주정부에서도 한국의 영웅 홍범도 장군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평가했다.



〈크즐오르다 고려인 대표와 방문 임원단〉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홍성덕 부이사장〉



〈탄생150주년 기념공연에서 부채춤 장면〉



〈기념공연 출연진과 방문 임원단〉

홍범도 장군 탄생1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 연극팀 초청 공연

홍범도기념사업회에서는 장군의 탄생 15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 팀을 초청하여, 홍범도 연극을 공연했다.

홍범도 연극은 1942년 당시 고려극장 극장장이며 국민 작가였던 태장춘 원작으로 고려극장에서 초연하였다.

가장 저명한 고려인 출신 작가인 태장춘은 홍범도 연극 “의병들”을 만들기 위하여 홍범도 장군에게 “홍범도 일지”를 쓰도록 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극본을 썼다. 연극을 초연할 때 홍범도 장군이 직접 관람하고 자신을 너무 영웅적으로 묘사했다고 언짢게 얘기했었다고 한다.

고려극장 연극팀을 초청공연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은 지난 3월 말이다. 연극 공연을 하려면 최소한 1년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탄생 150주년이라는 상황과 홍범도 장군을 소재로 한 연극에 집착하여 모험을 한 것이다. 다행히 육사사관학교에서 공연을 허락해 주었고, 대표적인 의병도시 제천시에서 승인하여 성사된 것이다.

초청 시기는 기념사업회에서 카자흐스탄 추모식을 거행한 이후로 하자고 제안하여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리 류보비 극장장을 비롯하여 21명을 초청하게 되었다.

11월 1일 도착한 단원들은 잠실 올림픽파크텔에 투숙

하자마자 육군사관학교 공연장으로 갔다. 연극을 하려면 조명과 음향, 비디오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시설이 너무 빈약했다.

밤중에 수소문하여 음향업자를 호출하여 보완작업을 하고, 조명은 최대한 조정하여 공연을 마쳤다. 그러나 우리말도 모르는 고려인 동포들이 대사를 외우고 표정을 익혀서 열정적으로 공연하여, 생도들과 관객들이 감동을 받아 열광적으로 환호했다.

11월 4일 공연한 제천문화회관은 비교적 조명과 음향이 갖춰졌지만 음향시설이 다소 빈약하여 서울에서 업자를 동원하여 무난히 공연을 마쳤다.

제천에서 류보비 극장장께 감명을 받은 것은 바쁜 일정 중에서 단원들에게 의병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의병기념관을 안내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자양당이라는 의병기념관을 답사하고 의병기념비 앞에서 단체사진도 촬영하게 되었다.

특히 류보비 극장장은 우원식 이사장이 바쁜 국회일정에도 불구하고 만찬을 베풀고 육사 공연을 참관한 것을 고맙게 생각했다. 육사 정진경 교장의 만찬과 격려, 그리고 정내하·홍성중 이사의 선물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이사장 초청 고려극장팀 만찬〉



〈육군사관학교 공연 후 출연진과 관람 임원〉



〈육군사관학교 공연 관람석〉



〈제천 자양당 의병기념탑 앞 연극단원〉

홍범도장군 순국75주기 추모행사 참관기

한국의 영웅,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영웅 홍범도 장군

김경호(기념사업회 이사, 대구시 자문대사)



10월 22일 천산산맥이 이어지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향하기 위해 아침 일찍 집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무척 들뜬 기분에서 공항에 도착했다. 해외업무를 30여 년 해온 저로서는 공항은 자주 가는 편인데 이번 방문은 이전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다.

항일무장투쟁사에 있어 중요한 역사인물 탐구이자 대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의미 있는 출국이다. 사실 당초에는 카자흐스탄이 예전 업무 관할 지역이었으나 다른 일정이 많아 관심을 두지 못했다. 그러나 탄생 150주년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는 행사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해서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기념사업회 임원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첫날 알마티에 도착해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다음날 아침에 항공편으로 홍범도 장군 묘가 있는 크즐오르다로 출발했다. 알마티에서 약 1,200킬로, 1시간 20분 소요되었다. 조그마한 시골 공항에는 김 엘레나 알렉세예브나(59세, 여) 크즐오르다 고려인 협회장이 마중 나왔다. 매우 반가웠다. 미니버스 2대로 분승해 도착한 곳은 시내 젊은 고려인 여사장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었다. 20여 명의 고려인 협회 간부 등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를 다정하고 반갑게 맞이해 줄 때, 다소 울적한 기분이 들었다. 이게 바로 같은 동포, 같은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상호 간에 소개와 함께 식사,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가까워졌다. 통역을 담당하던 나도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우리 정서와 비슷하고 잘 알려진 ‘카튜사’를 함께 불렀다.

다음날 행사는 홍범도 장군 흉상이 있는 묘지에서 고려인 동포 대표들과 고려인 여대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홍범도 장군께서 만족하시리 만큼 멋있게 이루어졌다. 저 자신도 기뻐다.

오후 행사는 크즐오르다주 주정부에서 지원하여 문화

회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인들의 춤과 노래 그리고 홍범도 장군 연극으로 진행하였다. 대성황이룬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다. 고려인 할머니들이 입고 있는 한복은 아주 구형으로 보여 한국에서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친구처럼 지내는 우즈벡 박 빅토르 고려문화협회장 겸 국회의원 요청으로 우즈벡 고려인들에게 한복 209벌 한복을 전달한 경험이 있어 남다르게 느껴졌다.

그날 크즐오르다에서 홍범도 장군 거주지와 “홍범도 거리”를 직접 볼 수 있었다. 저녁에는 크즐오르다에서 마지막 행사를 마치고 약식으로 저녁을 했다. 가슴이 벅찼다. 기념사업회에서 5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이런 행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알마티로 향했다.

다음날, 알마티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에는 많은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범도 장군의 순국 75주기 추모식과 연극 행사가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알마티 시내 고려인들이 장사하는 시장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 물어봐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정말 매년 홍범도 장군에 대한 행사를 개최하여, 고려인들이라도 장군을 알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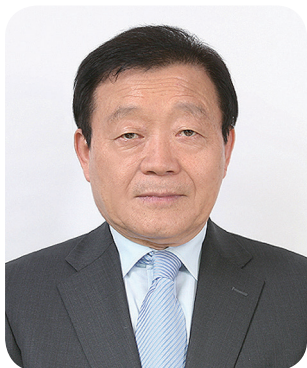
홍범도! 지금까지 저 역시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의 상식을 갖고 있는 정도였다. 한국인 중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 정도로 알고 있을 것이다. 기념회의 사업활동을 통하여, 그리고 특히 이번 카자흐스탄 방문으로 홍범도 장군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 알게 되어, 앞으로 독립운동사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래 러시아 극동 연해주 우수리스크를 몇 차례 방문하면서,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을 소신껏 펼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최재형 선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최재형 선생 거주지는 2년 전만 해도 거의 폐허 수준이었는데 우리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새로 단장하여 늦게나마 잘 정비되었다.

홍범도 영원하라!. 영원하라!. 영원하라! 그리고 우리의 홍범도 장군 ‘우라!’(러시아어로 우라는 만세의 의미)

카자흐스탄 아카데미 고려극장과 흥범도 연극 흥범도 연극의 재연은 기념사업회의 자랑스러운 업적

황원 섭(기념사업회 이사)



흥범도 장군을 소재로 한 연극 “의병들”은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발굴하여 재연시킨 자랑스러운 업적이다. 1942년에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에서 초연되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에서는 민족주의적인 전통을 억제하고 획일적인 체제를 구축하려고, 고려인들의 민족의식을 자극하는 흥범도 연극을 외면한 것이다.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2013년 장군의 70주기 추모행사를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한 해 전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때 중앙아시아 음악을 전공한 김보희 교수가 흥범도 연극의 실체를 알려주고 재연하려면 고려극장과 협의해 보라고 알려주었다. 확인한 결과, 고려극장이나 카자흐스탄에는 연극의 대본이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 다행히 조규익 교수에게 대본을 구하고, 최영근 선생이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고려극장으로 보내고, 극장에서 요청한 공연비를 이종찬 이사장 주선으로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받아 성사시킨 것이다.

2013년 10월 25일 흥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순국70주기 추모식을 맞아 고려극장에서 재연함으로써, 71년 만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흥범도 연극이 다시 생명력을 찾은 것은 기념사업회의 업적이며,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금년에 고려극장 팀을 초청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성사된 것이다.

태장춘이 흥범도 연극을 쓰려고 장군에게 “흥범도 일지”를 쓰도록 부탁하여 이 일지를 토대로 대본을 쓴 것이다. 흥범도 일지는 무장독립투쟁을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사료가 되었다.

이 작품을 쓸 때는 3부작으로 구성하여 1부는 흥범도의 의병활동, 2부는 빨치산의 지휘자, 3부는 이상적인 혁명가로 묘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장군이 일찍 순국하고 정치적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1부만 남아 있다.

연극의 이름도 당초에는 “의병들”이었으나 순국이후에는 “흥범도”라 했고, 2013년 기념사업회에서 “날은 흥범도 장군”으로 개명했다.

이 연극은 모두 4막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인공 흥범도와 부대인물 30여 명이 등장한다. 우진이라는 의병출

신 배신자가 일본군에게 잡혀있는 흥범도 부인의 가짜 편지를 기생 월향을 이용하여, 흥범도에게 전달하여 회유하려는 수작을 꾸민 것이다.

결국 흥범도가 친형제처럼 믿었던 우진과 일본 앞잡이 원홍과 같은 반역자들의 음모와 흥범도 의병대를 토벌하려던 삼수읍 헌병대장 야마다의 흉계로 판명되었다.

극 중에 흥범도는 “나는 무식한 몸이지만 한 가지만은 똑똑히 안다. 우리 땅은 남에게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대사가 나온다. 바로 이것이 흥범도 대장이 일제와 싸운 동기이고, 의병대원을 통솔하는 지도이념이며 독립운동의 기본정신이다.

조규익 교수는 “흥범도”는 창의적인 예술작품이라기 보다는 “주인공의 영웅성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애국심이라는 메시지를 도출하려는 사실주의적 퍼포먼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연극은 실존적 주인공의 강한 주문에 따라 사실성을 구현하지만, “전설적 영웅이자 호랑이 잡던 백두산 포수라는 흥범도의 이미지를 군데군데 끼워 넣음으로써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흥범도 연극의 본적지인 고려극장은 디아스포라가 세운 극장이다. 19세기 후반기부터 20세기 초에 연해주로 망명한 고려인 동포들이 세운 유서 깊은 극장이다. 척박한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생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우리 민족의 독특한 예술적 기질을 발휘하여, 1932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창설되었다. 1937년 강제이주라는 대수난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예술지향성 유전자가 발동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고려극장은 85년을 존속하는 동안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민족문화의 중심지이고, 민족적 정체성을 배양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금년에는 최고 영예인 “아카데미 극장”이란 칭호를 받은 민족문화와 예술의 향기를 심어주는 발원지이다.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고려극장을 유엔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추진 중이다. 고려인이라는 소수민족이 일제 항쟁기에 대륙을 유랑하는 디아스포라로 살면서도 고유한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강한 의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문화유산으로 평가한 것이다. 고유한 민족문화와 전통을 계승하여 전통문화를 이어가려는 이들의 열정에 열렬한 박수를 보낸다.

무장독립운동 장군열전 5

…최초의 평민출신 의병장,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 장군…

홍성덕(기업사협회 부이사장)



신돌석(申洞石)의 본명(本名)은 신태호(申泰浩), 이명은 신돌석(申丕錫), 자는 순경(舜卿), 1878년 11월 26일 출생하여 1908년 12월 11일(음력 11월 18일) 살해당한 구한말의 의병장이다. 신돌석은 경북 영해군(지금의 영덕군)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고려 개국공신 신숭겸의 후예이지만

영해에서 그의 문중은 서리, 즉 중인 집안이었고 그의 집은 아전에서도 밀려나 갓도 쓸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신돌석은 마을 서당에서 글을 익히며 학문을 익혔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듬해인 1906년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면에서 평민으로서 의병을 일으켰다. 초기 의병 운동은 주로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평민 출신이었던 그는 대한제국 최초의 평민 의병장으로 유명하다. 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태백산, 소백산 주변에서 활약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건강하고 용감하기로 소문이 났고, 넓은 시내를 단번에 뛰어 건널 정도로 몸이 튼튼했다고 한다. 을미사변으로 전국적으로 의병 운동이 일어났을 때 18세의 나이에 영덕에서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켰다.

그는 경상북도 동해안 지방을 차례로 점령하는 큰 전과를 올렸고, 이에 경북 출신으로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김하락 부대에 안동의 유시연과 함께 합세하였다. 그러나 김하락의 의병 연합부대가 영덕에서 일본군에게 대패하여 김하락이 중상을 입고 투신자살하면서 의병대도 해산되었다.

신돌석은 1905년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이후 동생 신우경과 함께 재차 의병을 일으켰다. 울진군에서 일본 군함 9척을 격침시키고 강원도 동해안 일대, 경상북도 내륙 지방, 원주 등 강원 내륙지방까지 세력을 확대했다. 이 때부터 그는 “태백산 호랑이”로 불릴 만큼 신출귀몰한 전공으로 이름을 날렸고 여러 구전 전설들도 만들어 졌다.

이강년의 의병대와 순흥(영주시)을 공격하는 연합 작전을 시도하는 등 계속되는 전과를 올리면서 경북 일대의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부상하였다. 1907년 11월 의병장 이인영을 중심으로 13도 의병이 연합해 서울을 공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전국의 의병부대는 양주로 집결했고, 이때 신돌석 의병장도 경상도 의병을 대표해 의병 1,000여 명을 이끌고 올라왔다. 그는 교남의병 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13도 연합의병의 서울 침공계획은 지도력의 미흡과 부실한 계획, 의병 재편 과정에서의 마찰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였다.

당시 13도연합의병부대의 각도 의병장들은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위정척사 사상을 전개한 양반, 유생 출신으로만 편성되어 의병장으로서 용맹을 떨치기는 하였지만, 평민 출신이었던 신돌석을 비롯하여 홍범도, 백제, 김수민 등 각처에서 용맹을 드날리던 천민 의병장들을 의병 연합에서 배제하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불거졌다. 이와 같은 한계성 때문에 서울 공략 작전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1908년부터는 유시연의 부대와 연계하면서 주로 유격전 위주로 의병 항쟁을 펼치다가, 그해 겨울 영덕의 눌곡(訥谷)에서 아깝게도 암살되었다.

국가보훈처의 공적조사에 따르면 옛 부하이자 고종사촌인 김상열(일명 김자성)을 찾아갔다. 그를 맞이한 김상열 형제는 음모를 꾸몄다. 신돌석의 시체를 일본군에 바쳐 상금을 타내려는 속셈이었다. 추운 겨울, 신출귀몰의 장수는 말술을 들이키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때 김씨 형제는 도끼를 들고 그의 몸을 내리쳤다.

김상열 형제는 그의 시체를 떠메고 일본군대로 갔으나 일본 헌병대 장교는 “사로잡아 오라고 했지, 죽이라고 했느냐”며 불호령을 내리고, 이들은 쫓겨나 현상금을 받는데 실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들도 내심으로는 동족으로서 영웅 신돌석은 죽인 것을 경멸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신돌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1995년 경북 영덕에 있는, 그의 생가인 초가집이 복원되었고, 2017. 10. 10 해군 잠수함사령부에 신돌석함 부대가 창설되어 동해를 지키고 있다.

...임원동정...

○우원식 이사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9월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와 법안 및 예산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덴마크 해상풍력단지과 재생에너지 산업현장을 시찰했다.

○이종찬 명예이사장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장은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국회 도서관 1층 중앙 홀에서 국회도서관이 주관 “이종찬 전 국회의원 기증 기록물 전시회”에 참석하여 답사인사를 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 소장 의정활동 기록물 6,500점을 국회기록보관소에 기증하여 후대에 전승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유진 고문



4·19혁명유공자회 상임이사는 11월 30일 서울 용산에 있는 한정식 가와집에서 “정론아카데미” 발기대회를 개최한다. 여기에는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김용준 전 국회사무총장, 김동원 목사 등 원로목사들이 참여하여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하여 정론을 떠나갈 계획이다.

○이우재 고문



윤봉길의사 월진회 명예회장은 월진회 주관으로 11월 19일 덕산 충의교회에서 개최된 시낭송 및 합창단 정기모임에서 격려인사를 하고, 17일에는 대치동 단국대 부속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제3회 매한 윤봉길의사 전국서예대회 대회에 참여했다.

○김경호 이사



대구시 자문대사는 11월 23일 대구시 국제의료 포럼에 참석하여 격려하고, 11월 8일에는 포항에서 개최된 제1차 한·러지방협력 포럼 행사에 참석, 극동 시베리아지역 주지사 등과 접촉하고 대구경북지방과의 협력문제를 협의했다. 또한 11월 6일 한라대학교, 12일 영남대학교, 13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전국 대학교를 순회하면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오세중 이사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11월 1일 역삼동 한국과 학기술회관에서 한-독변리사회 정기이사회를 갖고, 11월 28일에는 국회 지식재산권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 우수논문 공모전 시상식과 변리사 자격 제도에 관한 논문발표회를 가졌다. 이어서 29일에는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주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 사법부의 불합리한 변리사 소송대리 제한에 관한 법해석 문제를 토론했다.

○이미자 이사



전 종로구의원은 종로구의정회 주관으로 11월 29일 종로 체부동 토속촌 삼계탕집에서 개최되는 2018년도 송년행사에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종로구청장과 국장단, 전·현직 구의원들이 참석한다.

○이영철 이사



도봉문화회장은 11월 12일부터 27일까지 도봉구민회관 1층 갤러리에서 개최된 도봉백일장 및 미술대회에서 입상자를 시상하고, 11월 23일에는 도봉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회 도봉구민 노래자랑 행사를 주관하였다.

○정내하 이사



(주)미네날하우스 대표이사는 11월 27일 대표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광주 YWCA청소년 방송제를 후원하여 개최하고, 11월 6일부터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중국국제수입 박람회에 참석했다.

○황원섭 이사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는 11월 6일 종로 한정식집에서 개최된 대표자 회의에 참석, 2018년도 의열단 창단100주년을 맞아 6월 개최될 학술회의에서 의열단 관계를 주제로 선정하고, 개교108주년 기념행사는 경희대학교에서 개최하도록 협의하기로 제안했다.

○홍성종 이사



남양홍씨남양군파대종중회 회장은 9월 16일 종친 회원 30여 명과 같이 경기도 연천에 있는 남양홍씨 일곱 분의 효행을 기리는 칠효문을 방문하여 추모하고, 휴전선 근처에 있는 태풍전망대를 안보 견학했다. 11월에는 경기 연천과 양주, 충북 청원, 경남 진주, 충남 서천에서 시향제를 지낸다.

○홍이표 이사



애국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소비자모임(애지모) 회장은 11월 17일 광운대 동해문화 예술관 대강당에서 350여 명이 참석하여 2019년도 소비자 트렌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10월 3일에는 서울현충공원에서 환경지킴이기자단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10월 23일에는 제2차 문화재 탐방사업으로 강화도를 답사했다.

○김도경 자문위원



한국여성문예원 원장은 12월 13일 오후 5시, 중구 충무아트홀 컨벤션홀에서 제10회 서울문화축제를 주관한다. 이 행사는 중구청과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후원하며, 시 낭송과 단막극 및 음악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